



# EC의 통합 환경마크제도

-연재 I-

김 종 명 / 환경처 기술감리위원

지난해 환경마크를 부착한 화장지가 부착하기전보다 32%나 판매량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평소에 환경보전 운동방법을 찾고 있던차에 정부에서 저오염제품임을 인증하는 환경마크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주시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현재 환경마크 부여대상품목이 많지 않아 슈퍼마켓등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으나, 해를 거듭할 수록 많은 환경마크제품이 쏟아져 나오리라 기대된다.

유럽에서는 상품에 환경마크를 부착하지 못하면 공해를 유발하는 제품으로 인식되어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받게되어 제품의 판매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등 EC각국에서 고유의 환경마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EC의회는 EC통합의 환경마크를 선정하고 관리운영규정을 제정하였는바, 우리나라 환경마크제도와 비교의 기회를 갖고, 대유럽 상품수출에는 EC통합 환경마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 EEC의 Council Regulation No. 880/92 of March 1992 on a Community eco-label award scheme을 전문 번역하였다.



◁ EC의 환경마크